

《나는 기생이다》 선정기 새롭게 조명된 기생의 삶과 사랑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네 분 선정위원들이 모두 다른 책을, 첫 손가락에 꼽아 주셨다. 헌데 문제는, 각자의 책들이 다른 선정위원들의 추천도서와 의각지세(倚角之勢)를 이루지 못하여 외로운 추천도서가 되어 버린 것. 궁여지책, 다득표로 '이 달의 책' 선정 방향을 돌렸다. 결과는? 《나는 기생이다》가 8월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글_장동석 기자

이 달의 책 선정위원

김광일 조선일보 문화부장 · 김연수 소설가
나신하 KBS 문화복지팀 출판담당 기자 · 이이화 역사학자

궁여지책이라 표현했으나 그것은 최상의 선택이 되었다. 물론 저자 정병설 교수가 책 출간 직후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 기자가 발을 동동 구르는 해프닝이 연출되긴 했지만, 다년간 공을 들여온 저자의 작품이,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묻혀있어 왜곡되었던 기생의 진면목이 빛을 본 계기가 된 셈이다.

서로 다른, 그러나 일리 있는

우선 선정위원들이 첫 자리에 둔 책들의 평을 들어보자. 《인권의 문법》을 추천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우리 학계에서 보기 드문 인권 문제 연구자인 저자가 그 동안 연구 축적의 하나로 인권의 기본문제를 제기하고 정의하였다”고 저자의 연구 성과를 먼저 높이 샀다. 아울러 “저자는 인권은 선험적 절대적 최고선인가하는 의문부터 풀어가려 하였다. 오늘날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의 중동지방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 인권유린의 대량학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KBS 나신하 기지는 이어령의 《우리문화 박물관》을 일러 “지금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무심코 스쳐지나가거나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일상의 사물들을 통해 우리 문화와 얼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면서 “우리 문화의 멋과 풍류, 미덕을 발견하고 복돋는 책, 그러나 난해한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흐뭇한 마음으로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 장점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배고프던 시절 고봉밥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에 울어본 사람에게 고봉이라는 말이 내리사랑의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면서 옛것을 추억했다.

소설가 김연수 씨는 박노해의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아요》

《인권의 문법》 조효제 지음 | 후머니타스 | 392쪽 | 값 18,000원

여지껏 아무도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던 '인권은 선험적이고, 절대적이며, 최고선인가' 하는 것이 이 책의 도발적 문제 제기이다. 아울러 저자는 “인권은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동기와 상관없이 논리적인 비판일 경우 이론적·4지성적으로 조우해야 한다. 비판이 인권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론들 덕분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100가지 민족문화 상징 사전》 주강현 지음 | 한겨레아이들 | 512쪽 | 값 28,000원

'100대 민족문화 상징' 선정의 책임연구원이었던 주강현 박사가 선정 및 연구과정에서 쌓은 축적물을 누구나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풀이했다. 100가지 아이템은 문화관광광부의 분류에 따라 6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상징물의 역사와 전통, 한민족의 삶에서 갖는 의미, 현대적 가치, 문화산업에서의 활용방법 등이 알차게 서술돼 있다.

《우리문화 박물관》 이어령 지음 | 디자인하우스 | 283쪽 | 값 13,000원

가위부터 화로까지 우리 옛 생활문화 속의 64개 물상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탐색기이다. 한국인의 마음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한국인을 만든 문화유전자 64개에 대한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가위 - 옛장수 가위의 작은 기적, 화로 - 불들의 납골당 등과 같은 식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 시적 함축성을 지닌 제목을 붙이고, 짧은 분량의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아요 - 고노의 레바논과 희망의 헤즈볼라》

박노해 글, 사진 | 느린걸음 | 304쪽 | 값 13,000원

시인, 평화운동가인 박노해씨가 지난해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을 방문, 참혹한 현장을 사진과 글에 담아낸 책이다. 피해 주민들을 만나면서 외신으로도 접하지 못했던 그들의 충격적 현실을 직접 찍은 150여 장의 사진과 시에 생생히 담아냈다.

《나무열전》 강판권 지음 | 글항아리 | 375쪽 | 값 18,000원

이 책은 나무를 통해 한자와 역사를 들여다보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다. 나무 마흔 그루를 통해 역사와 문자를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 속에서의 나무의 쓰임새와 옛 사람들이 나무와 관련해 만들어낸 문화의 이런 저런 모습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를 “의도를 설명하기보다 실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적인 르포르타주”라고 정의하면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은 사진들도 충격적이지만, 그 사진들 대부분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행방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글 역시 그렇게 거기 살던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광일 문화부장은 《나무열전》을 가리켜 “최근에 나무와 관련된 서적 가운데 매우 유니크한 편집과 기획을 보이고 있다”고 평하면서 “한자를 통해서 나무를 배운다. 또 나무를 통해서 한자를 배운다. 식물학자도 한문학자도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유가 있다. 나무가 우리에게 우리 역사와 문자, 그리고 옛사람들의 지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풀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독자들에게 권했다.

기생도 사람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는 기생이다》에 대한 평을 들어보자. 나신하 기자는 “《소수록》 등 옛 문헌을 통해 기생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한 대중 연구서이지만, 문화 교양서이자 다양한 콘텐츠의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주목되는 책”이라고 책의 가치를 평가했다. “남성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천대받았던 기생들의 굴욕적인 삶이 영화 속 이미지처럼 펼쳐진다. 안정된 집안의 첩살이를 선망하고, 말년엔 생계를 걱정했던 기생의 일생은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부끄러운 이면이다. 여성과 하층민들의 희생 위에 허약하게 번성한 후기 조선사회의 이중성을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대중문화를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복원된 기생 이미지의 편파성에서 벗어나는데도 도움이 될 책이다.”

《나는 기생이다》 정병설 지음 | 문학동네 | 390쪽 | 값 15,000원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소수록》과 서울대 규장각, 고려대 도서관, 미국 버클리 대학 아사미문고 그리고 정병설 교수 개인이 소장한 기생 관련 작품을 번역해 주석을 달고 해석한 것이다. 기생들의 장편가사와 토론문, 시조, 편지글 등이 조선시대 기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기에 충분하다.

《능라도에서 생긴 일》 이재하 지음 | 세계사 | 276쪽 | 값 10,000원

이재하의 17년 만의 장편소설. 환상적 리얼리즘, 광기의 미학으로 한국문학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능라도’라는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 회원들 앞으로 권총 한 정이 배달되며 시작된다. 총을 매개로 빚어지는 현실 공간의 충돌이 오늘날 한국인의 삶의 궤적과 맞물리면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황금 지붕》 오수연 지음 | 실천문학 | 336쪽 | 값 9,800원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분쟁지역에서 평화 운동을 해온 오수연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이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삼은 〈여름방학〉 외에 나머지는 모두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작가는 건조한 시선으로 복원해낸 ‘현실’을 통해 지상에서의 평가가 얼마나 이중적이며 자기 환상적인가를 말하고 있다.

이이화 선생은 “역사학자, 민속학자, 소설가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는 말로 향후 이 책의 활용도를 짚어주면서 “저자는 기생도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오히려 시대의 피해자, 축첩을 용인한 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평했다. “한 기생의 자전적 기록을 토대로 여러 관련 자료를 동원해 기생의 여러 모습을 복원하였다. 딱딱한 논문식이 아니라 ‘벼락처럼 만나고 번개처럼 헤어지다’의 중간제목에서 보이는 대로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였다.”

김연수 씨는 “《소수록》이라는 자료 발굴도 자료 발굴이려니와, 그 자료를 읽는 방식이 너무나 자상하다”면서 “예컨대 각주를 다는 것이야 기존의 서적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 책처럼 그 자료의 전후사정을 당대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되니 평면적이었던 자료가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전해주었다.

순수한 미래학자 복거일의 발견

8월 이 달의 책은 대부분 소수의견이었지만 그 중 눈에 띄는 책은, 복거일의 《벗어남으로서의 과학》이다. 김광일 부장은 “흔히 복거일 씨에 대해 우파 지식인이란 꼬리표를 붙인다. 그러나 우리는 복거일 씨가 우리 사회에 대해 미래를 보는 안목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광일 부장은 “이념적 대결의 장에 올라서 있는 보수적 지식인으로서 복거일이 아니라, 순수한 미래학자, 혹은 과학에 정통한 사회학자로서 약역한 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는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주의 주장의 차원을 넘어서는 과학적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김광일**

《벗어남으로서의 과학》 복거일 지음 | 문학과지성사 | 328쪽 | 값 12,000원

복거일 작가의 과학을 소재로 한 사회 평론집. ‘인간의 노후화’ ‘호주제 폐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합리적 접근’ ‘혼혈인 문제’ ‘신뢰의 중요성’ 등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적 문제들을 과학적 앎을 통해 짚어낸다. 동시대의 학문적 업적들을 두루 살피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

《속속들이 이해하는 서양 생활사》 김복래 지음 | 안티쿠스 | 352쪽 | 값 12,000원

고대 그리스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서양인들의 의식주, 여가 및 문화생활의 소소한 단면들을 소개한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아닌 고대 로마인들이 즐겨 먹었던 요리와 음료, 르네상스 귀족들의 오락거리, 유행했던 옷 스타일 등 생활문화 전반과 현대에 통용되는 개념인 ‘사생활’의 역사를 담았다.

